

2000년 전의 타임캡슐이 열렸다

3월3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서 '신창동 유적 특별전'

유물 805점 세월의 흔적 고스란히... 보름간 2만여명 관람

박물관은 우리에게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현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상상 창고'이다. 그런 의미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오는 3월3일까지 진행되는 '2000년 전의 타임캡슐' 특별전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13일 오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3년째 문화해설사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강병원(64)씨와 특별전을 둘러봤다. 휴일을 맞아 가족과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꾸준해 이어졌다. 부모들은 안내문을 열심히 읽으며 자녀들에게 설명하기 바쁘고, 자녀는 유물 하나하나에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는 세월이 지나서도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을 농기구나 각종 사용도구로 쓰지 않고 도구를 만드는 공구로 사용한 모습에서는 당시 철이 귀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출토된 발화도구들에서는 불을 지피기 위해 부단히 두 손을 비벼볼 모습이 눈에 선했다.

한참을 농경문화에 대해 설명하던 강씨는 "농사일이 뜬한 계절에는 오늘날과 같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 '흥'을 즐겼을 것이라"며 "생각만큼 소리가 나지는 않지만 발견된 현악기와 청동 방울, 북에서 당시의 모습이 그려진다"고 전했다.

강씨의 입을 통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유물 805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광주·전남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었다.

입구에 설치된 곡식창고는 저습지였던 신창동의 환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동남아 국가들의 가옥처럼 바닥에서 1m 정도 높게 설치해 습기와 각종 해충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했다.

곡식 창고 옆에는 오늘날과 달리 뱃단을 나무에 뒤집어 말리고 있었다. 강씨는 "영양분이 모두 알갱이에 모이기를 바랐던 당시 사람들의 바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입구에 들어서자 따가운 여름 햇볕을 버텨냈을 벼 낫질과 손 땀이 배어있을 당시의 수많은 농기구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신창동이 동북아시아 최대의 벼 생산지임을 짐작하게 했다. 신창동 유적에서 발견된 낫알은 모두 검게 그을린 탄화미다. 강씨는 "불에 타 수분이 모두 빠졌기 때문에 2000년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는 "마한은 소와 말을 탈 줄 모르며 장례에 써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신창동 유적에서는 마차와 관련된 바퀴통, 바퀴살 등이 발견됐다. 역사의 기록을 정면으로 반박함을 눈으로 보여줬다. 두 팔을 벌려야 겨우 닿는 지름 1m60cm의 수레바퀴의 크기는 2000년 전 길이 함축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 1997년 출토된 천 조각(너비 2cm·길이 3cm)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천으로, 기원전 1세기경의 것으로 확인됐다. 선사·고대의 베를 구조를 밝힐 수 있는 방직 도구도 발견됐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은 "마한은 양잠을 알고 옷감을 만들었다"고 기록했다.

이 밖에도 타임캡슐에 갇혀있다가 모습을 드러낸 세계 최초의 신발굽, 철기, 목걸, 각종 토기들도 당시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재미를 선사한다.

이번 특별전은 기원전 1세기, 삼한시대 마한(馬韓)지역 유물의 보고인 광주시 광산구



조리용 토기



장신구



들로 만든 나무 가공 도구

신창동 유적 사적 제375호(1992년 9월9일) 지정 20주년을 기념해 열리고 있다. 지난 1963년 첫 발굴조사와 1992년 이후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베일을 벗은 유적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3일까지 보름간 2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강씨는 전시실을 나서면서 "수천 년 전의 삶의 방식이 오늘날과 많이 다를 것 같지만 근간을 이루는 기본틀은 유사하다"며 "신창동 유적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최대 규모로 발견된 거대 복합 농경 유적임에도 생각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해 아쉽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난 13일 가족과 함께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2000년전의 타임캡슐' 전을 찾은 초등학생이 현악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래전愛' '결혼연습' '변사극-검사와 여선생'

1월~2월은 공연 비수기로 꼽힌다. 지역 연극계 역시 올 한해 공연을 준비하며 잠시 움츠러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올해는 색다른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3개 지역 극단이 개최하는 '겨울연극 축제'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극단 드라마스튜디오, 극단 Y, 극단 연우량이 주최하는 '겨울연극축제'(주최위원장 윤희철)는 17일~27일(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5시)까지 전남대 정문에 위치한 소극장 씨디아트에서 열린다.

20일까지 공연되는 첫번째 작품은 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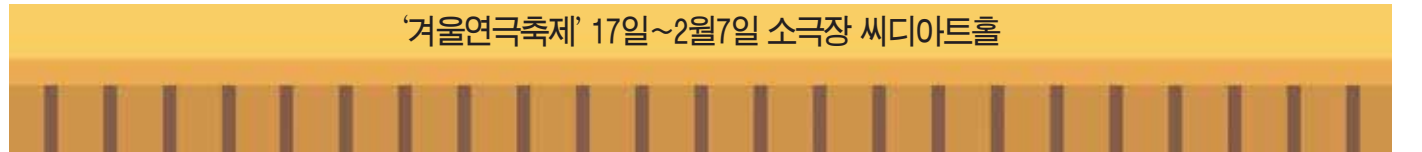
스튜디오의 '오래전愛', '불꽃 꺼 주세요' 등 히트작을 집필한 이만희의 작품으로 강남진씨가 연출을 맡았다. 황혼기에 접어든 남녀 동창생 3명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윤희철·한중근·강인영씨가 출연한다. 이어 무대에 올려지는 작품은 극단 연우량의 '결혼연습'(24일~27일)이다. 결혼에 대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갈등을 그린 작품으로 진정한 사랑을 묻고 있다. 이현기·이지은·박가람씨가 출연한다.

극단 Y의 '눈은 코미디언 이야기'(박규상 연출)는 31일부터 2월3일까지 관객들을 만

난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도시에서 밀려나는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린 작품이다. 윤희철·한중근·김해리·정관섭씨 등이 출연한다.

마지막 작품은 '변사극-검사와 여선생'으로 최영화씨가 연출을 맡았다. '검사야 여선생'은 우리나라 마지막 무성영화로 윤희철씨가 변사를 맡아 색다른 무대를 선보인다.

티켓 가격은 편당 2만원이며 4작품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은 5만원이다. 현장에서 구입가능하다. 062-223-01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차노취 '기차가 달린다' 출판기념회... 19일 담양 생오지

지난해 첫 소설집 '기차가 달린다'를 낸 소설가 차노취씨가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19일 오후 1시 담양 생오지 문예창작촌.

이날 기념회에서는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던 광주대 신덕룡 교수와 시인 허형만씨가 축사를, 전홍남(한려대 국문과 교수)씨가 전문가 사평을 한다.

지난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얼굴을 보다'가 당선, 등단한 차씨는 현

재 생오지에서 소설 기초반 강의를 맡고 있으며 소설집 '기차가 달린다'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2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의 061-382-240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협력형사업 공모 광주문화재단 18일 2차 설명회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태)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지역협력형사업 공모에 대한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공모를 시작한 공영장상주단체육성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래밍, 시·도기획지원사업, 우리가락우리마당 등 4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18일 사업설명회를 가진 뒤 21일부터 2월 4일까지 광주문화재단 국가문화예술회사지원시스템(http://gj.artskorea.or.kr)을 통해 접수 받는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노후화로 이전

광주시립미술관 3월부터 운영 잠정 중단... 하반기 입주 계획

광주시립미술관이 청년 작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양산동 창작스튜디오는 그동안 노후화로 인해 대체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4일 광주시립미술관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양산동 근로자 복지아파트 내에 위치한 양산동 창작스튜디오의 대체 공간 선정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의견을 조율중이다. 양산동 창작스튜디오는 현재 입주중인 작가 9명의 계약이 끝나는 오는 3월부터 운영을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양산동 창작스튜디오는 아파르트형 작업실, 영상편집실, 사무실, 세탁실, 프레젠테이션 갤러리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진 지 30여 년이 넘어

가면서 노후화로 인해 입주 작가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10여 평 남짓한 스튜디오 공간도 대형 크기의 작품 활동을 하기에는 제한적이였다.

시립미술관은 "양산동 스튜디오 이전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왔다"며 "오는 3월께 부지 선정을 마무리 짓고 공고를 거쳐 하반기부터 새 창작센터에 작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립미술관은 지난해 말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9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가 지난 11일 "창작스튜디오 이전 추진에 따라 2013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모집공고를 취소하고 추후 재공고할 예정"이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 행정처리의 미숙한 점을 드러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10% 추가 할인' 페지 추진 온라인서점 정가제 강화

출판계 해묵은 논쟁거리인 온라인 서점의 '10% 추가 할인'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출판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도서정가제 강화 차원에서 마일리지와 쿠폰 등을 이용한 추가 할인을 제한하도록 했다.

최재천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는 '반값 할인' 등 무차별적인 할인 마케팅을 막고 도서정가제를 대대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 현행 정가제는 출간 18개월 미만인 신간에만 할인율을 10%까지 제한하고, 18개월이 지나면 할인율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개정안은 그러나 기간에 상관 없이 신간과 구간 모두에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도서관에 판매하는 책도 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연합뉴스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62)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25,000원 / 33,000원 / 40,000원 / 50,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